

골든타임 100일...광주시,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출범

광주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100일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비상(飛翔)의 시간’에 돌입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7일 서울 여의도 대외협력본부에서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현판 제막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정준호·전진숙·박균택 국회의원,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가동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100일 골든타임’을 활용해 광주 대선공약 등 지역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국정과제 마련에 나선 만큼 광주시도 이에 발맞춘 전략적 조직 재편이다.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은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채택된 ▲광주시 7대 지역공약 ▲자치구 5대 공약 ▲우리동네 32개 공약 등이 중심이 된 지역의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전략 거점으로 운영된다.

광주시 7대 공약은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적극 추진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선언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사업 적극 추진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여의도 대외협력본부서 현판식... 국정과제 수립 때까지 전략 거점 모든 실·국 협력 사안·정책별 TF 대응... 중앙정부·국회 긴밀 협의 강기정 시장 “광주미래 달린 비상(飛翔)의 시간... 실질성과 창출에 총력”

등이다.

서울상황실은 국정기획위원회를 비롯한 중앙정부, 국회 등과 소통하는 대외협력의 핵심 창구 임무도 수행한다. 특히 100일의 집중 활동기간 동안 국정과제 반영 실무 대응, 정당·정부와 실시간 정책협의 등 실질적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광주시는 전략적 조직 운영을 통해 새 정부 골든타임을 확실히 잡는다는 계획이

다. 국회·중앙정부 경험이 풍부한 강기정 시장을 필두로 정책별로 실국장과 공직자, 공공기관장과 임직원 등이 TF 방식의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 국회 등과 전방위 협력을 펼친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강기정 시장 주재로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공약 국정과제 전달팀(TF) 회의’를 열어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전략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및 지역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대선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초기 100일은 광주의 미래를 좌우할 비상(飛翔)의 시간이다”며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은 광주의 미래전략을 국정과제에 담기 위해 국회, 정부와 협력하는 거점이 될 것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 광주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도일 기자



광주 남구, ‘강풍뎨 흥기’ 옥외 간판 점검 시정명령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철거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여름철 태풍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점검에 나선다.

남구에 따르면 태풍 대비 옥외광고물 점검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1주간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신규 허가와 표시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이미 점검을 받은 광고물은 제외된다.

안전 점검 대상 간판은 최근 2개년 동안 점검을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도, 옥상에 설치한 간판 6개와 돌출 간판 18개, 벽면 이용 간판 16개로 파악된다.

대다수가 지난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보행로 인근에 설치한 간판이며, 이 간판 중에는 보행로 인근에 설치된 지 15년 이상 지났지만 최근 2개

년 동안 점검을 받지 않은 간판도 포함됐다.

남구는 1차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이 발견된 간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안전 문제가 심각히 우려되는 간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광고물 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강한 바람이 불면 간판의 경우 보행자의 생명·안전 뿐만 아니라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흥기로 돌변할 수 있다”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점검인 만큼 소유자분들께서도 먼저 자가 점검을 하는 등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서구, 음식점 주방정리 컨설팅 준비 ‘착착’

전문 컨설팅트단이 위생 진단·정리 시연 통해 맞춤형 개선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17일 서구청 이음홀에서 ‘주방정리 컨설팅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골목상권 소규모 음식점 주방정리 지원사업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컨설팅트단이 15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주방 위생 진단부터 정리 시연, 수납 용품까지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위생 개선 프로젝트다.

서구는 컨설팅을 수행할 인력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9명을 선발하고 총 16시간의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전문인력인 ‘정리수납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실전형 컨설팅트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주방·식재료 보관장소·냉장고 등 위생 진단 ▲정리 시연 ▲위생 개선

방안 안내 등을 통해 업주가 스스로 위생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천 위주의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대상 업소는 주방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이나 여성 1인 운영 업소와 착한 가게 등 사회공헌에 참여 중인 소규모 음식점을 우선 고려해 오는 7월 중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기존의 단속과 지도·점검 위주의 보건위생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을 찾아가 위생 관리와 주방 정리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구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청년·노인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주택’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북구 사회주택 조성사업’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부담 없는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북구와 LH광주전남지역본부가 협업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LH가 마련한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을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북구, 기본 사회의 주거공급모델 ‘사회주택’ 조성 나선다 북구-LH 광주전남본부 ‘북구형 사회주택 관리·운영 업무협약’

북구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8일 오후 2시 북구청에서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 북구형 사회주택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조성될 ‘북구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27년 말까지 3개소의 사

회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며 먼저 총 156세대 규모의 ‘청년 도약 주택’ 2개소를 용봉동 127-3번지(60세대)와 1372-1번지(96세대) 일대에 조성하고 추후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어르신 돌봄 주택’ 1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이 눈에 띄는 점은 이재

명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방향 중 하나로 거론되는 ‘신축매입임대 거점화’의 지자체-LH 협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축매입임대 거점화’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속에서 기존 주거 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구축 및 제공하여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이다.

/송현근 기자

동구,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총력 대응

취약지역(24개소), 소하천(3개소) 등 주요 재난취약에 대해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수방자재를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해당 부서에 비치했다.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빗물받이 도구함도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2개소의 내부 물품도 정비했다. 특히 동구 자율방재단과 함께하는 빗물받이 청소 활동, 주민 대상 재난 대비 교육,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예방 사업(용산·월

남동), 동산전 재해예방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 행동 요령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각 동 자율방재단의 합동 예찰 활동을 통해 산사태 및 낙석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 계획이다. /오철수 기자

